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2015. 12. 21.(월) 13:00~16:30
더 팔래스 호텔 서울 로얄볼룸(1층)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 주 제 |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육아지원의 실제와 과제

| 일 시 | 2015. 12. 21(월) 13:00~16:30

| 장 소 | 더팔래스 호텔 서울 로얄볼룸(1층)

| 참석자 |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구성원 외 (약 100여명)

| 일정표 |

구 분	진 행 내 용	
12:30~13:00 (30분)	등록	
	사회	권미경 육아지원연구팀장
13:00~13:10 (10분)	개회사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13:10~13:20 (10분)	축사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최진욱 원장(통일연구원)
13:20~14:00 (40분)	기조강연	“통일 준비의 방향과 과제” 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
14:00~14:10 (10분)	휴식	
14:10~15:40 (90분)	주제발표 1	“통일대비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 홍민 연구위원·이경화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주제발표 2	“북한 유아교육 실제” 이미연 (前 북한 유치원 교사)
	주제발표 3	“유아교사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5:40~16:20 (40분)	좌장	조복희 명예교수(경희대 아동가족학과)
	토론	양옥승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박영정 센터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 이은희 교사(공주대학교 사범대부설유치원)
16:20~16:30 (10분)	질의응답 및 폐회	

Contents |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기초강연 통일 준비의 방향과 과제	1
류 길 재 (前 통일부 장관)	
주제발표 1 통일대비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	7
홍 민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 경 화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주제발표 2 북한 유아교육 실제	19
이 미 연 (前 북한 유치원 교사)	
주제발표 3 유아교사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29
이 윤 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67
좌장: 조 복 희 명예교수(경희대 아동가족학과)	
토론: 양 옥 승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 69	
이 기 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 72	
박 영 정 센터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 / 76	
이 은 희 교사(공주대학교 사범대부설유치원) / 78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

| 기조강연 |

통일 준비의 방향과 과제

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

기조강연

통일 준비의 방향과 과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前 통일부 장관)

1. 분단 70년과 통일의 의미

■ 분단 70년의 의미

- 분단 질서의 고착화→통일의 시급성
- 대한민국의 '기적'(산업화+민주화)→통일 주도자로서의 책무와 소명
- 동북아 안보의 긴장 요인 상존→동북아 평화 증진의 책임

■ 통일의 의미

- 당위론적 차원의 통일 인식
 - 통일은 '무조건' 이뤄야
 -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연적 선택
- 적극적 인식 차원에서의 '회복'과 '연결'
 -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의 회복
 - 대륙과 해양의 연결
- 공동체 혁신의 연장
 -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폭제
 - 국제협력과 통일 과정의 선순환

2.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길

■ 통일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

-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시민교육 차원에서 학교부터 일반 국민까지 포괄적으로
 - 전쟁 세대 및 기성세대의 담론에서 21세기형 담론으로 이뤄져야
- 통일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봐야
 - 통일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실체가 있다?
 - 우리 사회는 통일을 위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했다?
 -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통일의 비전,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구조 구축
 - *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 인정/존중

■ 호혜적인 남북 협력을 위한 노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한반도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구상의 공감대 형성
-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모두의 이익 창출
- 평화로운 여건 조성을 위한 구상과 노력
 - *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 국내적인 통일준비 박차

- 통일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인식
- 공동체적 사회 여건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도입을 통한 북한 개발 구상
- 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통일 문화의 확산
- 통일 친화적인 사회 구축: 탈북민의 성공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 통일 준비 거버넌스의 구축

■ 국제사회와의 협력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도출
- 주변국과의 협력 하에 대북 사업 추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추진

| 주제 발표 1 |

**통일대비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

홍민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경화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주제발표 1

통일대비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

홍민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경화 객원연구위원(통일연구원)

I. 서론

- 북한은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식량난을 경험하면서 매우 취약한 어린이 보건의료 환경에 처해 있음.
 - 기존 사회주의계획경제 아래 이루어진 ‘보건의료’ 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자원 부족으로 이미 1980년대에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태에 있었음.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년이 넘는 기간에 태어난 북한은 주민들은 대부분 영양 결핍과 신체 왜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미래 통일한국의 인구학적 결합 차원에서 북한이 영양결핍, 보건의료 열악, 신체 왜소화 현상 등은 통합의 장애 요인
-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론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통일은 상상만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준비될 때 현실성을 갖게 될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실질적 통일준비의 구체적 구상
 -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통일의 현장인 드레스덴에서 밝힌 구상은 통일의 실질적 준비라는 측면에서 중요
 -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제안한 모자 패키지(1000 Days Project) 사업은 건강한 통일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통일준비에 해당

- 북한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보건의료는 통일시대 주역이 될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

II.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드레스덴 구상

- 박근혜 정부는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 패러다임 전환
-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차원에서 접근
 - 평화통일기반구축의 실천과제로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구축, 동질성 회복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과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신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응하고 있음.
- 가장 정치적 색채가 적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상호교류의 통로 확보
-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을 강조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모자보건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와 함께 산모 및 영유아의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실시할 것임을 선언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 아래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임.
-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옴.
- 높은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과 영양결핍은 영유아의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끼쳐 만성 질환에 취약한 인구세대로 남게 됨.

- 이에 따라 현 상황의 영양부족으로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오게 될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을 짊어지게 됨.
- 영유아의 영양부족은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통일 이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북한 영유아 보건 지원은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건강 확보와 행복한 삶의 기반임.

-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협력에 있어 국민의 신뢰형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음.
-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보건의료 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된 인도적 사업으로 중단 없이 지속

III.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

1. 북한 영유아 보건 의료 실태 파악

-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초기에는 자원이 식량제공에 집중되었으나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97년부터 규모가 증가
 - 의약품과 의료장비, 제약공장 설립,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병원신축사업 등
- 이에 1998년부터 UNICEF와 WFP가 북한 당국의 도움을 받아 2년에 한 번씩 북한 영유아의 영양조사를 실시
 - 영양조사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 다중지표군조사(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와 영양실태조사(NS, National nutritional survey)임. 그러나 2000년과 2006년에는 국제기구의 도움 없이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특히 2006년 데이터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¹⁾

1) Jeong Eun Kim, "Nutritional State of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p. 136

- 국제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은 1998년, 2002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다중지표군조사(MICS)방식으로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을 통한 어린이 영양, 건강상태, 미량영양소 부족, 모성건강, 모유수유, 식품섭취, 예방접종률 등을 조사
- 2009년도에는 다중지표군조사 방식, 2012년에는 영양실태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 북한의 아동보건지표는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상민 외(2014)는 World Bank의 자료를 근거로 1996년에는 출생아 1000명당 78.4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아동보건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으로 2011년에는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33명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제시²⁾
 - 그 외 황나미(2014), 김정수(2014)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사망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제시
- 북한 영유아의 영양결핍 유병률, 급성영양장애, 만성영양장애 및 저체중의 추이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음. (1998-2006년)³⁾
- 그러나 가장 최근 발표된 2012년 유니세프, WFP, WHO의 북한영양실태조사(NS)에서 2011년 5세 미만 사망률은 1000명당 25.2,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8.5라는 결과가 도출.
 - 북한에 의해 조사 발표된 2006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⁴⁾
- 또한 2012년 조사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임. 만성영양실조 유병률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양강도 지역이 2009년 43%에서 2012년 39.6%로 소폭 하락한 반면, 평양에서는 24%에서 15.6%로 크게 하락함.
- 반면, 신생아 사망률이 1990년대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음.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개발계획,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2-2013 아시아태평양지역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는 북한이 새천년개발목표 일부 부문의 달성이 어렵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라고 발표(2013. 11. 21, VOA 뉴스)
 -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26%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신생아 사망률은 천명 당 1990년 22.9명에서 2011년 26.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

2) 박상민 외, “북한 모자보건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6(8), 2014.

3) 황나미 외,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사업 접근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p. 44

4)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Sep 17 to Oct 17, 2012, p. 9.

- 2012년도 이후로 실시된 북한영양조사 결과는 찾을 수 없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영유아 영양지표들이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이러한 지표 개선이 대북 지원으로 인한 효과인지 북한 내부의 상황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도 알아내기가 어려움.
 - 특히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최근 북한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황이 더욱 호전될지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

2. 북한 어린이 보건으로 지원

■ 국내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지원 유형은 정부주도사업(A), 민간주도형 사업(B)로 구분

	정부주도형사업		민간주도형사업		
	상황대응적사업	중점기획사업	개별사업	합동사업	
주재원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민간단체	한국정부 민간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단체
시행기관	정부 국내민간단체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국내민간단체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국내민간단체	국내민간단체	국제기구 국제단체
사업 예	말라리아, SARS 관련 지원 용천피해지원 수해피해지원 등 특수목적 지원	대규모 컨소시엄 영유아사업	소규모 국내민간단체활 동지원	대규모 컨소시엄 개발사업중심	
한국정부역할	++	+++	+	++	

출처: 신영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의료협력: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51, No. 7, p. 681.

- 정부주도형사업은 상황대응적 사업(A-1)과 중점기획사업(A-2)으로 분류
 - 상황대응적 사업(A-1)은 수해, 사고, 전염병 창궐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 사업목적과 방법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재정부담 역시 정부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
 - 중점기획사업(A-2)은 영유아사업이 대표적으로 한국정부가 기획과 재원을 제공

- 민간주도형사업(B)은 민간이 주도하고 통일부가 지원하는 사업.
- 외국정부와 국제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국제보건의료지원 사업(C)은 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
- 정부주도 중점기획사업(A-2)은 남한정부가 정부주도로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 사업목표와 내용, 시행원칙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B), 국제사업(C)과 구별되고,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주도 상황대응적 사업(A-1)과도 구별
- 국내 대북 영유아 보건의료지원은 정부주도 중점기획사업(A-2) 방식으로 국제사회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 시행
- 대북 영유아 보건의료지원은 2005년 정부주도의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형태가 달라졌음.
- 2005년을 시작으로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5.24조치 이후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에 집중됨.
- 우리 정부는 북한 어린이 건강상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2005년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을 마련
 - 북한 내 취약계층 중에서도 영양불량에 큰 타격을 받는 5세 미만 영유아와 산모 및 수유부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을 목표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 5.24 조치 이전 정부주도 사업은 기존 민간단체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형태가 아닌 사업목표 및 계획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남북 당국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 대규모 사업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남포시 영양지원 및 어린이병원 개보수 및 장비지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남포시 어린이병원 증축, 필수약품 공급 및 영양지원 사업

- ② 남포산원 산모영양증진사업 및 병원 현대화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주관단체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산모 영양개선사업과 남포산원 시설 증축, 기자재 지원사업 및 산모에 대한 영양개선사업
 - ③ 대안군 영유아 사업 및 병원 현대화사업: 어린이재단이 주관단체가 되는 영유아 및 산모 영양지원, 보건환경 개선사업,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및 검진장비, 의료장비 지원사업
 - ④ 회령지역 영유아지원사업: 한국 JTS가 주관기관으로 평양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지원사업. 모자보건센터 신축, 영양개선사업, 질병관리 지원사업 계획
 - ⑤ 어린이 영양지원 시설 사업: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이 주관하여 콩기름 및 대두박 등 어린이 영양생산시설 지원사업
- 또한, 2007년 10월 4일에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보건의료분야협력이 발전
-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남과 북은 병원, 의료 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과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채택.
 -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남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지원사업에 집중

2014년도	WFP의 모자보건사업 지원	7,384
	WHO의 모자보건사업 지원	6,674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5건	625
	국내외 NGO합동포럼개최사업	82
2013년도	UNICEF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6,737
	WHO의 북한영유아지원사업	6,514
2012년도	국제백신연구소에 지원	2,337
	대북수해피해 지원	48
2011년도	대북수해피해지원 11건	3,635
	백두산 화산 남북학술토론회 2건	8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6,532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단위: 백만원)

- 반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북한 유엔대표부가 유엔기구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북한 식량난과 배급상황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됨.
 - 유엔은 지원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위한 원칙을 상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북한은 2005년 위기 상황이 완화되자 유엔에 협조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축소함.
 -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중단 또는 감액됨.
- 2003년을 기점으로 국내 인도적 대북 지원액이 국제사회의 총 지원액을 상회하게 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공여자 비율을 보면 한국이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따라서 대북 영유아의료보전 지원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IV. 결론 및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사업은 인도적, 통일비용측면, 남북교류협력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님.
-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민간단체 보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지속되었음.
 - 그만큼 영유아 보건의료사업은 인도적인 사안으로 중대함.
- 특히 북한의 모니터링 비협조 등 거부적 태도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북한 영유아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큼.
- 본 글에서 다룬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의 핵심적 사안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둘째, 북한과의 관계에 따른 지원 문제
 - 셋째,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수준

- 첫째,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음. 또한 보건의료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최근 북한의 시장화 확대에 의한 경제 회복세가 영유아 영양상태나 보건의료 개선에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할 수 없음.
 -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파악하였으나 최근 자료에서는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결과도 도출. 2012년 이후의 정보를 찾기도 어려움.
- 둘째,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짐에도 5.24조치 이후 민간단체를 대신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지속됨.
 - 특히 박근혜정부는 5.24조치 관련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는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 사업임.
- 셋째,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북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제기구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결론적으로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서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임.
 - 확실한 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폭을 넓히는 기반

• 참고 문헌 •

- 강동완. “대북지원 보건의료협력의 현안과 과제: 지난 10년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2(2), 2008.
- 김정수. “북한의 취약국가 유형과 취약성 개선방안: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4년 가을호, 2014.
- 박상민, 이해원, 김보현. “북한 모자보건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16(8), 2014.
- 신영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의료협력사업: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1(7), 2008.
- 심재은. “영양불량의 이중부담: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정책에의 함의”. 통일과평화 6(1), 2014.
- 이정희.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비교: 1998~2012년 북한 어린이 영양조사 보고서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16(4), 2014.
- 황나미. “북한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16(8), 2014.
- 황나미, 김혜련, 이상영.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사업 접근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Jeong Eun Kim, "Nutritional State of Children in the DPRK: Based on the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r* 17(3), 2014.
- UNICEF, WFP, and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September 17th to October 17th 2012*, March 2013.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PRK*, Unicef DPRK, 2003.

| 주제발표 2 |

북한 유아교육 실제

이 미 연 (前 북한 유치원 교사)

북한의 유치원 교육

이미연(연세대학교)

INDEX

1. Intro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3. 남북한 유치원 교육 통합의 방향

1. Intro

- 12년제(기존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의 첫 과정
- 소학교를 위한 기초단계로서의 교육
- 본격적인 사상교육(주체사상, 혁명전통, 사회주의, 준법정신 등)의 시작단계
- 국가가 교육의 전반을 담당 및 통제
- 북한 사회 정치사상화를 위한 이념교육기관으로서의 하부말단기관

행정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국립유치원만 존재(국가유치원, 공장·기업소 소속 유치원)
- 1~2개 동에 1개씩,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별 1개씩
- 시, 군별 교육부가 관장(탁아소->보건부)
- 원장, 책임 교양원, 교양원(높은 반/낮은 반), 경리, 식당, 목수, 경비, 우차공,
- 5급~1급 교양원, 공훈/인민교양원
- 1인 1 학급제(보통 30명)-> 높은 1반, 낮은 1반



수업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어린시절 이야기(3개 교과목), 우리말, 셈세기,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놀이, 관찰, 체육
- 노래와 춤으로 일관된 수업진행
- 하루 2교시(각 30분), 지도수업 1(각 50분),
- 발풍금/아코디언 기술 검비
- 개학 학부모 참관수업, 주 1회 원장 참관수업
- 월간 수업계획서, 주간 수업계획서, 수업 교수지도안(교양), 교편물 사전 준비
- 주변 담당제로 하루 일과 집행



일과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7:30 출근
- 7:30 ~ 8:00 보위사업
- 8:00 ~ 8:30 수업준비 및 교실 청소
- 8:30 ~ 9:00 어린이 맞이
- 9:00 ~ 9:20 아침체조
- 9:20 ~ 9:50 1수업
- 9:50 ~ 10:20 휴식시간
- 10:20 ~ 10:50 2수업
- 10:50 ~ 11:00 휴식시간
- 11:00 ~ 11:50 교양수업(놀이, 관찰, 체육)
- 12:00 ~ 13:00 점심시간(도시락 or 유치원 급식)
- 13:00 ~ 15:00 낮잠시간(수업준비 및 교편물 제작)
- 15:00 ~ 16:00 낮 체조
- 16:00 ~ 16:20 숙제검열 및 귀가준비
- 16:30 ~ 17:00 귀가
- 17:00 ~ 17:30 하루 총화 및 다음날 계획 토의(원장 주도 회의)
- 17:00 ~ 18:00 교실청소 및 퇴근준비
- 18:00 ~ 퇴근

교수기법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30분 수업(되살리기, 새 지식주기, 다지기)
- 교실입장, 수업시작, 제 자리 앉기,
- 5분 동안 정치사상교육(강한 주입식)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를 통한 수업
- 어린시절 이야기: 3대교양실-> 사판과 사진을 통한 세뇌교육
- 우리말: 가갸줄, 고기-> “기억” “그---”
- 셈세기: 하나-> 이름, 글자 써보기, 하나 찾아보기, 하나와 비슷한 것 찾아보기
- 노래와 춤: 시범 부르기, 노랫말 읊어보기 및 따라부르기(2소절/4소절/전체), 춤 배워보기
- 끊임없는 질문을 통한 대답 이끌어내기,
- 지능개발을 위한 교수경연(자체, 도·시·군별, 중앙), 새 교육방법 시범화

동영상



우상숭배 및 적화통일교육

미국놈 쏘자야
<http://blog.naver.com/ghr01124>

보통속도로 힘있게

1. 우리들의 원수 미국놈들은
아름다운 내나라 삼키려는 놈

1.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미제승냥이 1
놈팡크를 처음에 6대 까부셨습
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
다. 두번에 몇대 까부셨습니
까?
2. 토끼 4마리와 토끼 5마리로 더
하기문제를 만들어보시오.
3. 로동자아저씨들이 프락포르를 2
대 만들었습니다. 이제 7대 만
들면 몇대 되겠습니까?
- 4.

더하는 수	7	6	5	4	3	2	1
더하는 수	3	4	5	6	7	8	9

사교육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북한 유치원에 부는 치마바람
- 인기 있는 유치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 1:1 과외(예체능, 외국어)
- 6월 1일 국제 아동절 경축 외국방문 공연 or T.V출연
- 생일날 친구문화 확산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더 잘 사나?
-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졸업 선물 문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유치원의 변화

2. 북한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변화

- 김정은 교과서 등장
- 통합 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 변화(교재:우리 유치원)
- 제목으로 된 수업방식, 교수의 폭이 넓어진 수업, 기존 교수방법의 변화
- 질의 응답 식 교육 추구(지능을 통한 섬세기, 표현을 통한 우리말 교육, 그리기와 만들기를 통한 소/대근육 운동, 동화이야기(심리)를 이용한 동물놀이를 통한 사고력 향상 등)

3. 남북한 유치원 통합 교육의 방향

- 교원자질의 균등화 or 통합 작업 우선(교과역량, 행정 수행 능력, 시민의식, 글로벌 마인드/열성적인 학생지도, 공공적 책임의식, 유치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결)
- 교원의 개인적 자질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공적 자질로 규정되는 북한 교원의 전문성-> 교과역량의 커다란 부족
- 역량 수준이나 교육관 차원에서의 동질화(교원자질적 측면)
- 양측의 교류를 통한 교재, 매체, 교과 및 학급지도 역량 UP
- 지나친 남쪽의 기준 NO
- 직업적인 혁명가,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특징지어진 교사의 역할의 균등화-> 독립적인 사고, 행동하는 교사의 인격체 & 설정된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의 성과로 반영되는 교사의 평가
- 교사양성제도와 정책의 통합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3 |

**유아교사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이 윤 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3

유아교사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¹⁾

이 윤 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 서론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에 이어 최근에는 남북 경제공동체가 통일 의제(Agenda)로 급부상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은 사회적 화두이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여성들의 통일의식이 남성보다 낮게 나왔다.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2013년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2014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61.9%라면 여성은 49.6%로, 성별 격차가 12.3%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인 비중이 크다(박명규·강원택·김병로·김병조·송영훈·장용석·정은미, 2014: 37).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담당 교사 2,145명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9.4%(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15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도권 교육기관은 기성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수자는 다름 아닌 교사이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유아들의 통일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생애초기의 경험이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도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누리과정

1) 본고는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시과제로 수행한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서, 12월 말에 발간 예정인 미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인용 및 복제를 금함.

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의 북한 및 통일교육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사회적 의제로서 통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보육 학계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남성에 비해 성인여성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성인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원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통일교육의 실재를 고찰하여 통일인식 제고 및 유아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유아교사의 통일교육 연수 현황

중앙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유아교사의 연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교사, 전문강사, 공무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와 전문강사를 ‘통일교육 핵심전달자’, 중앙·지자체·공기업을 ‘통일준비 인력’이라 칭하고 있다. 2015년 통일교육원의 교육인원은 총 5,470명이며 2014년에는 5,374명이었다.

〈표 1〉 2014년·2015년 통일교육원의 교육인원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전체 교육 인원	교육과정	5,374명	5,470명	통일문제 핵심전달자(교사, 전문강사) 위주의 교육으로 개편
	연인원	28,780명	34,000명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p. 3.

통일교육 과정은 전문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교육과정, 사이버통일과정으로 구분된다. 유치원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

2) 최근에 수행한 유아교사의 통일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한국평화연구학회(2015)와 유은정·정희정(2013)의 연구가 있으며, 누리과정의 유아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숙자·김현정(2015), 김유라(2012), 최민수·신현미(2012)가 있음.

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자에는 어린이집 교사는 공식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학교통일교육과정’에서도 유치원 교사반은 초등반 내에 편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반은 올해 1회 개최되며 인원은 45명이다. 이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 비해 훨씬 적은 인원으로, 올해 ‘학교통일교육과정’ 총 인원 1,73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다.

〈표 2〉 2015년 통일교육 과정현황

구분	세부과정명	교육 계획인원				교육일정	
		기간	횟수	인원	연인원		
전문 과정	통일정책최고위과정	8강	1	40	320	4월-7일. 제8강(격주 목)	
	통일정책지도자과정	44주	1	60	14,520	2.10-12.10	
	통일기획과정	26주	2	20	1,300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2주/4주	2	75	1,200	5.18-29(2주), 7.6-31(4주)	
		3일	3	75	225	4.1-3, 9.9-11, 11.23-25	
소계			9	270	17,565		
평화통일 기반구축 과정	생략						
학교통일 교육 과정	중 등	교장(감)반	3일	5	315	945	생략
		장기반	2주	2	180	1,800	
		기본반	3일/4일	4	225	720	
		자유학기제반	5일	2	90	450	
		통일교육연구 학교교사반	3일	1	45	135	
	초 등	교장(감)반	3일	4	315	945	
		교사반	3일/4일	4	225	720	
		유치원교사반	3일	1	45	135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반	3일	2	90	270	생략	

구분	세부과정명	교육 계획인원				교육일정
		기간	횟수	인원	연인원	
학교통일 교육과정	교원연수원통일교육운영자반	3일	1	45	135	생략
	예비교사반	3일	2	160	480	
	소계		28	1,735	6,735	
사회통일 교육과정	통일교육위원반	3일	3	135	405	생략
	민주평통자문위원반	2일	3	270	540	
	통일관련 단체반	2일	8	430	860	
	종교단체반	2일	2	125	250	
	대학생반	2/3일	6	315	856	
	청소년반	1일	3	385	385	
	소계		25	1,660	3,295	
글로벌 교육과정	생략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	사이버통일교육 (공무원, 일반국민)	4주	10	21,000	21,000	
	교원교육	4주	10	7,000	7,000	
	학점인정	16주	4	480	480	
	방북교육	-	-	-	-	
	소계		24	28,480	28,480	
합계		115	33,950	62,480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p. 6.

2015년 유치원 교사반의 통일교육 세부 교육계획은 다음 <표 3>과 같다. 교육목표는 유치원 교사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학교통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및 유아원³⁾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교수기법 체득에 있다. 교육일정은 9월 9일부터 11일 동안 합숙(15시간)으로 실시되며 총 45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수방법은 강의, 토론 등 참여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활동이 활용되며 교육내용은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최근 북한 동향과 전망, 국제 정세와 통일환경, 통일미래 비전과 통일준비, 유치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이며 현장 견학 장소는 남북출입사무소 및 판문점, 땅굴, 전망대 등 분단현장이다.

3)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아원이란 용어를 명기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지칭함.

〈표 3〉 2015년 통일교육원 유치원 교사반 세부 교육계획

구분	내용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교육자인 유치원 교사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기반 마련 - 유치원 및 유아원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교수기법 체득
교육대상/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유아원 교사 45명, 3일 합숙(15시간) - 1차: 9월 9일~11일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 최근 북한 동향과 변화 전망 - 국제 정세와 통일환경 - 통일미래 비전과 통일준비 - 유치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토론 및 참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종합토론 * 현장 견학 등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출입사무소 및 판문점, 땅굴, 전망대 등 분단현장 - 북한관련 영상물 시청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p. 41.

3. 누리과정에서의 북한 및 통일교육 편성·운영과 실제 운영

가. 누리과정에서의 북한 및 통일교육 편성·운영

현행 3~5세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영역과 교육내용은 ‘사회관계 영역’에 제시되어 있다. 내용 범주-내용은 사회에 관심 갖기, 우리나라에 관심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가지기에 포함되어 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제시되어 있다.

〈표 4〉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내용범주	내용	3세	4세	5세
사회에 관심갖기	우리나라에 관심갖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을 해야 함을 안다. -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그러나 실제 수업활동을 제시한 교사용 지도서의 「우리나라」 생활주제에 만 3세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활동은 실려있지 않다.⁴⁾ 만 4세 대상의 북한 및 통일교육 활동은 “북한음식 노트를 만들어요”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2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만 5세 유아 대상의 활동으로도 “북한여행 안내책 만들기” “북한말, 우리말” 등 2개 활동만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관계 영역에도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라는 내용의 연령별 내용에도 북한이나 통일이란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표 5〉 생활주제 「우리나라」에 수록된 북한 및 통일교육 활동

연령	활동명	활동형태	활동유형(영역)	누리과정 관련 영역
만 5세	북한 여행 안내책 만들기	자유선택 활동	언어	사회관계, 의사소통
	북한말, 우리말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의사소통, 자연탐구
	통일이 되면	대·소집단 활동	동시	사회관계, 의사소통
만 4세	북한음식 노트를 만들어요	대·소집단 활동	요리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자연탐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자유선택 활동	수·조작	사회관계, 자연탐구
만 3세	미편성			

자료: 만 4세 -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제8권 「우리나라」 p. 14.

만 5세 -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제8권 「우리나라」 p. 29.

4)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015년에 만 3세 단일연령반(학급) 담당 교사는 제외함.

누리과정 내에 북한 및 통일교육 부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유아교사의 통일교육 연수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교육원에서 교사대상으로 통일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의 견해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가장 넓은 영역이 ‘사회관계’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교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정교사 연수 등에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도 통일교육 강좌가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유아교육 커리큘럼 역시 통일교육 관련 강좌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유아교사들이 학창시절을 비롯해서 평소에 들어보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주제를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과거에는 유치원 교사반이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는 다시 유치원 교사반을 개설해서 통일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통일교육원 교수).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실제 운영

1) 응답자 특성

유아교사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유아 통일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는 50.3%, 유치원교사는 49.8%였고, 이 중 민간어린이집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유치원 25.0%, 사립유치원 24.8%, 국공립어린이집 10.0%, 법인어린이집 9.8% 순이었다. 담당 반은 만5세반(32.0%)과 만4세반(27.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99.5%로 대부분이었고, 4-7년 미만 교사가 27.5%로 가장 많았다. 교사 연령은 20대 36.5%, 30대 30.8%, 40대 25.5% 순이었고, 최종학력은 대졸 46.8%, 전문대졸 이하 43.3%, 대학원졸 10.0%였다.

〈표 6〉 조사 참여 교사 특성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400)	전체	100.0	(400)
기관유형			성별		
유치원	49.8	(199)	남	0.5	(2)
어린이집	50.3	(201)	여	99.5	(398)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설립유형			경력		
국공립유치원	25.0	(100)	4년 미만	17.0	(68)
사립유치원	24.8	(99)	4-7년 미만	27.5	(110)
국공립어린이집	10.0	(40)	7-10년 미만	21.3	(85)
법인어린이집	9.8	(39)	10-15년 미만	18.0	(72)
민간어린이집	30.5	(122)	15년 이상	16.3	(65)
담당 반			연령		
만4세반	27.5	(110)	20대	36.5	(146)
만5세반	32.0	(128)	30대	30.8	(123)
만3,4세혼합반	5.8	(23)	40대	25.5	(102)
만4,5세혼합반	10.5	(42)	50대	7.3	(29)
만3,5세혼합반	2.3	(9)	최종학력		
만3,4,5세혼합반	12.8	(51)	전문대졸 이하	43.3	(173)
만6세이상반	9.3	(37)	대졸	46.8	(187)
			대학원졸	10.0	(4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2) 누리과정에서의 중요도

현행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내용이 다른 교육내용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음+별로 중요하지 않음)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이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음이 50.0%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중요함이 37.8%였다.

〈표 7〉 누리과정 내 북한 및 통일교육 비중 인식

단위: %(명), 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계(수)	F(df)
전체	8.3	50.0	37.8	4.0	2.38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6.0	50.3	39.7	4.0	2.42	100.0(199)	1.46(1)
어린이집	10.4	49.8	35.8	4.0	2.33	100.0(2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연간 수업계획안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1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미편성이 57.8%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비중이 27.3% 등의 순이었다. 기관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2.29점)이 어린이집(2.00점)에 비해 북한 및 통일교육의 비중이 더 높았고,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2.31점)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1.98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표 8〉 연간 수업계획안의 북한 및 통일교육 비중

단위: %(명), 점

	완전 미편성	거의 미편성	대체로 비중	매우 비중	평균	계	F(df)
전체	14.3	57.8	27.3	0.8	2.15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8.0	56.8	33.7	1.5	2.29	100.0(199)	19.50(1)***
어린이집	20.4	58.7	20.9	0.0	2.00	100.0(201)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0	61.0	32.0	2.0	2.31	100.0(100)	5.01(4)**
사립유치원	11.1	52.5	35.4	1.0	2.26	100.0(99)	
국공립어린이집	20.0	57.5	22.5	0.0	2.03	100.0(40)	
법인어린이집	15.4	64.1	20.5	0.0	2.05	100.0(39)	
민간어린이집	22.1	57.4	20.5	0.0	1.98	100.0(12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연간 수업계획안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을 전혀 편성·운영하지 않거나 거의 편성·운영하지 않았다는 교사 288명을 대상으로 미편성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누리과정에서 낮은 비중이 43.8%로 가장 높았고, 유아에게 부적절한 주제 17.0%, 유아들이 흥미로워하지 않아서 14.2%, 누리과정에서 활동 자료 미비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간 수업계획안의 북한 및 통일교육 미편성 이유

단위: %(명)

	누과과정 에서 낮은 비중	유아에게 부적절한 주제	유아들이 흥미로워 하지 않음	누과과정 에서 활동 자료미비	관련된 수업 자료 미비	중요하 지 않게 생각	기 타	계	$\chi^2(df)$
전체	43.8	17.0	14.2	11.5	7.6	2.8	3.1	100.0(288)	
기관유형									
유치원	36.4	20.9	12.4	15.5	9.3	2.3	3.1	100.0(129)	9.87(6)
어린이집	49.7	13.8	15.7	8.2	6.3	3.1	3.1	100.0(15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3) 수업일수

연간 수업계획안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을 편성·운영했다고(대체로+매우) 응답한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 일수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연간 평균 5-9일이 25.9%로 가장 많았고, 1-2일이 25%로 2순이며 20일 이상은 13.4%로 가장 적었다. 유치원은 3-4일이 24.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은 1-2일과 5-9일이 33.3%로 가장 많았다.

〈표 10〉 북한 및 통일교육 수업 일수

단위: %(명), 일

	1-2일	3-4일	5-9일	10-19일	20일 이상	계	$F(df)$
전체	25.0	18.8	25.9	17.0	13.4	100.0(112)	
기관유형							
유치원	20.0	24.3	21.4	21.4	12.9	100.0(70)	0.18(1)
어린이집	33.3	9.5	33.3	9.5	14.3	100.0(4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4) 교수방법

올해 담당 반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활동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소집단활동이 71.0%, 자유선택활동이 29.0%로 주로 대·소집단활동을 통해 북한 및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활동유형별 북한 및 통일교육 편성 비중

				단위: %(명)
	대·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계	$\chi^2(df)$
전체	71.0	29.0	100.0(112)	
기관유형				
유치원	73.7	26.3	100.0(70)	2.06(1)
어린이집	66.4	33.6	100.0(4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대·소집단활동을 통해 북한 및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많이 실시한 활동 영역을 1, 2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가 89.8%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동화 7.4%, 새노래·동시 1.9%, 동극 0.9% 순이었다. 1+2순위에서도 이야기 나누기가 99.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였으며, 동화가 49.1%였다. 게임·신체활동(20.4%)과 요리 활동(4.6%)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대·소집단활동에서 주된 북한 및 통일교육 활동 영역(1순위, 1+2순위)

							단위: %(명)
	이야기 나누기	동화	새노래·동시	동극	계(수)		$\chi^2(df)$
1순위 전체	89.8	7.4	1.9	0.9	100.0(108)		100.0(108)
기관유형							
유치원	86.8	10.3	1.5	1.5	100.0(68)		2.99(3)
어린이집	95.0	2.5	2.5	0.0	100.0(40)		
	이야기 나누기	동화	게임·신체활동	새노래·동시	요리	동극	계(수)
1+2순위 전체	99.1	49.1	20.4	13.0	4.6	3.7	(10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유선택활동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많이 실시한 활동 영역을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에서는 언어영역이 7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조작 10.4%, 쌓기와 미술 6.5%, 역할 5.2%, 음률 1.3% 순이었다.

〈표 13〉 자유선택활동 내 북한 및 통일교육 세부편성 영역(1순위, 1+2순위)

단위: %(명)

	언어	수·조작	쌓기	미술	역할	음률	계	$\chi^2(df)$
1순위 전체	70.1	10.4	6.5	6.5	5.2	1.3	100.0(77)	100.0(77)
기관유형								
유치원	66.7	14.6	8.3	4.2	4.2	2.1	100.0(48)	4.97(5)
어린이집	75.9	3.4	3.4	10.3	6.9	0.0	100.0(29)	
	언어	수·조작	미술	역할	쌓기	음률	과학	계
1+2순위 전체	83.1	40.3	28.6	23.4	11.7	6.5	3.9	(7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5) 누리과정에서 유아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에는 만 3세에 북한 및 통일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수업활동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유아발달 특성상 만 3세 유아에게 북한 및 통일교육은 적절하지 않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했다. 즉, 지금처럼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 3세 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혼합학급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만 3세에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2.8%, 커리큘럼 연계상 만 3세에도 편성·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1.0%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현재 혼합연령학급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현실적 이유로 편성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교사경력이 대체로 많고, 대학원졸에서 만 3세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 안에 북한 및 통일교육 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표 14〉 누리과정 내 만3세 대상 북한 및 통일교육 미편성 의견

단위: %(명)

	유아발달 특성상 편성부적절	커리큘럼 연계상 편성적절	현실적 이유로 편성적절	잘모름/ 무응답	계	$\chi^2(df)$
전체	54.0	21.0	22.8	2.3	100.0(400)	
기관종류						
유치원	55.8	16.6	25.6	2.0	100.0(199)	5.46(3)
어린이집	52.2	25.4	19.9	2.5	100.0(201)	

	유아발달 특성상 편성부적절	커리큘럼 연계상 편성적절	현실적 이유로 편성적절	잘모름/ 무응답	계	$\chi^2(df)$
담당 반						
만4세반	46.4	33.6	17.3	2.7	100.0(110)	25.85(18)
만5세반	58.6	18.0	20.3	3.1	100.0(128)	
만3,4세 혼합반	56.5	8.7	34.8	0.0	100.0(23)	
만4,5세 혼합반	57.1	16.7	23.8	2.4	100.0(42)	
만3,5세 혼합반	77.8	0.0	22.2	0.0	100.0(9)	
만3,4,5세 혼합반	52.9	11.8	33.3	2.0	100.0(51)	
만6세 이상반	51.4	24.3	24.3	0.0	100.0(37)	
경력						
4년 미만	52.9	23.5	23.5	0.0	100.0(68)	19.95(12)
4-7년 미만	49.1	22.7	23.6	4.5	100.0(110)	
7-10년 미만	60.0	14.1	24.7	1.2	100.0(85)	
10-15년 미만	48.6	33.3	15.3	2.8	100.0(72)	
15년 이상	61.5	10.8	26.2	1.5	100.0(65)	
최종학력						
전문대졸	50.3	24.3	22.0	3.5	100.0(173)	5.24(6)
대졸	56.1	19.3	23.0	1.6	100.0(187)	
대학원졸	60.0	15.0	25.0	0.0	100.0(40)	

주: 현실적 이유란 “만 3세가 포함된 혼합반이 있으므로 편성·운영이 적절하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유아교사에게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알아본 결과, ppt, 그림사진, 활동지 지원과 같은 “보다 풍부한 활동자료 제공”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43.0%). 이어서 “교사 연수 실시” 20.5%, “보다 다양하나 활동 개발 및 보급” 19.3%, “통일교육 전문가 인력풀(pool) 공유 및 초청 강연”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부분 개선사항

단위: %(명)

	다양한 활동개발· 보급	풍부한 활동자료 제공	교사 연수 실시	전문가 인력 풀 공유 및 초청강연	없음	계	$\chi^2(df)$
전체	19.3	43.0	20.5	15.3	2.0	100.0(400)	
기관종류							
유치원	19.1	41.7	21.6	16.1	1.5	100.0(199)	1.06(4)
어린이집	19.4	44.3	19.4	14.4	2.5	100.0(2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4. 유아교사 통일교육 연수 현황 및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가. 통일교육 연수 현황

최근 3년 동안(설문조사 실시일 기준)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해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5.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있다’는 4.3%로 17사에 불과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연수를 받은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0%에 불과했다.

〈표 16〉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경험

단위: %(명)

	있다	없다	계	$\chi^2(df)$
전체	4.3	95.8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7.5	92.5	100.0(199)	10.52(1)**
어린이집	1.0	99.0	100.0(2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연수가 있는지 몰라서(연수 미인지)”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설된 연수프로그램이 없어서”가 30.8%를 차지했다.

〈표 17〉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미참여 이유

단위: %(명)

	연수일정 맞지 않음	수강 인원 마감	신청 기간 놓침	대체 교사 미확보	필요성 못느낌	연수 프로 그램 없음	연수 미인지	기 타	계	$\chi^2(df)$
전체	7.6	0.3	1.3	2.3	3.7	30.8	53.0	1.0	100.0(383)	
기관유형										
유치원	8.2	0.5	0.5	2.2	4.3	37.5	46.2	0.5	100.0(184)	12.42(7)
어린이집	7.0	0.0	2.0	2.5	3.0	24.6	59.3	1.5	100.0(19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이처럼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연수 자체가 개설되지 않아서”(3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누리 과정에 북한 및 통일교육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29.5%) “유아교사 양성커리큘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커리큘럼 비중 저조)”(21.0%) 순으로 저조한 이유를 꼽았다. 본인이 연수를 가게 되면 대신할 “대체인력 부족”이 9.5%, “상급학교 교원에 비해 방학일수가 부족해서” 7.0%로 나와 인력과 시간은 저조한 연수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이수가 낮은 이유

단위: %(명)

	누리 과정에서 비중 저조	교사 양성과정에서 비중 저조	연수 미개설	방학 일수 부족	대체 인력 부족	기 타	계(수)	$\chi^2(df)$
전체	29.5	21.0	31.0	7.0	9.5	2.0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23.6	19.1	38.2	7.5	9.0	2.5	100.0(199)	12.70(5)
어린이집	35.3	22.9	23.9	6.5	10.0	1.5	100.0(2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최근 3년 간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17사례에게 참여횟수, 연수를 주최한 기관, 참여 이유, 만족도 등을 알아보았다.

〈표 19〉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참여횟수

단위: %(명), 회

	1회	2회	평균	계	F(df)
전체	82.4	17.6	1.18	100.0(17)	
기관유형					
유치원	86.7	13.3	1.13	100.0(15)	1.59(1)
어린이집	50.0	50.0	1.50	100.0(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참여한 연수의 주최기관은 가장 최근에 참여한 연수를 기준으로 답한 결과이다. 교육(지원)청이 47.1%로 가장 많고, 통일교육원 35.3%이며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약 6%에 그쳤다. 기타 응답은 '잘 모름'이 주로 나왔다.

〈표 20〉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주최기관

단위: %(명)

	통일 교육원	교육 (지원)청	유아교육 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계	$\chi^2(df)$
전체	35.3	47.1	5.9	5.9	5.9	100.0(17)	
기관유형							
유치원	40.0	46.7	0.0	6.7	6.7	100.0(15)	8.57(4)
어린이집	0.0	50.0	50.0	0.0	0.0	100.0(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연수를 참여하게 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70.6%가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기관에서 참여를 독려해서” 11.8%이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승급점수에 필요해서” “기타”가 5.9%로 동일하게 나왔다.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참여이유

단위: %(명)

	교사연수 프로그램 내 포함	개인적 관심	승급 점수필요	기관 참여독려	기타	계	$\chi^2(df)$
전체	70.6	5.9	5.9	11.8	5.9	100.0(17)	
기관유형							
유치원	73.3	6.7	6.7	6.7	6.7	100.0(15)	3.35(4)
어린이집	50.0	0.0	0.0	50.0	0.0	100.0(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연수를 받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76.5%, “매우 만족스럽다” 17.6%로 94.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12점이다.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나오지 않았다.

〈표 22〉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 만족도

단위: %(명)

	다소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계	$F(df)$
전체	5.9	76.5	17.6	3.12	100.0(17)	
기관유형						
유치원	6.7	73.3	20.0	3.13	100.0(15)	0.13(1)
어린이집	0.0	100.0	0.0	3.00	100.0(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인식과 비교

유아교사 본인의 평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67.8%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도와야 할 한민족”이 19.5%를 차지했으며 “휴전상태의 적대국”은 11.3% 정도만이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은 북한을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 또는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한민족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어린이집은 도와할 한민족이란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경력과 연령, 학력이 높을수록 동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북한을 ‘적대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20대에서 20.5%로 가장 많이 나왔다면, 50대 교사에서는 단 한 사례로 나오지 않아서 연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3〉 유아교사의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도와야 할 한민족	휴전상태의 적대국	교류협력 동반자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19.5	11.3	67.8	1.5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17.6	11.1	69.8	1.5	100.0(199)	1.01(3)
어린이집	21.4	11.4	65.7	1.5	100.0(201)	
연령						
20대	18.5	20.5	59.6	1.4	100.0(146)	22.90(9)**
30대	20.3	8.1	69.9	1.6	100.0(123)	
40대	20.6	4.9	72.5	2.0	100.0(102)	
50대	17.2	0.0	82.8	0.0	100.0(29)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19.1	13.9	65.3	1.7	100.0(173)	7.41(6)
대졸	18.7	11.2	68.4	1.6	100.0(187)	
대학원졸	25.0	0.0	75.0	0.0	100.0(4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 〈표 24〉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일반국민이 응답한 결과이다. “도와할 한민족”이 35.9%로 가장 많이 나왔고, “교류협력해야 할 동반자”가 33.4%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1순위의 응답수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적대국”으로 인식한 경우는 26.3%로 가장 낮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동반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유아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이므로(99.5%) 유아교사 응답에서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1순위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요컨대, 여성들은 북한은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유아교사 결과와 동일하게 20대에서 북한을 “휴전상태에 있는 적대국”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 가장 높게 나왔다. 양 조사에서 동일하게, 평화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온 점이 아이러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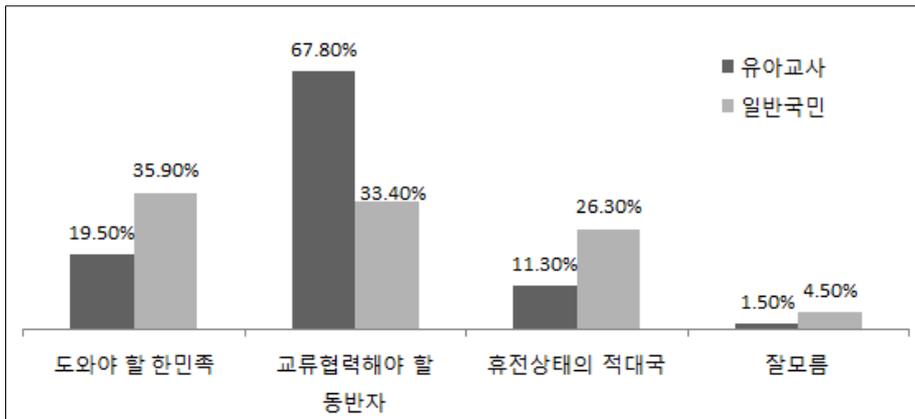
〈표 24〉 일반 국민의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	휴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대상임	모름/ 무응답	계	$\chi^2(df)$
전체	35.9	33.4	26.3	4.5	100.0(800)	
성별						
남	39.0	27.6	30.1	3.2	100.0(438)	21.52(3)***
여	32.0	40.3	21.5	6.1	100.0(362)	
연령						
20대	18.0	36.9	43.4	1.6	100.0(122)	53.70(12)** *
30대	35.4	27.7	28.5	8.5	100.0(130)	
40대	38.7	32.9	23.9	4.5	100.0(155)	
50대	49.7	31.8	14.5	4.0	100.0(173)	
60대 이상	33.2	36.4	26.4	4.1	100.0(220)	

자료: 이윤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미간행물. p. 114.

*** p < .001.



[그림 1] 북한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와 일반국민 비교

유아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바람직한 남북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47.5%의 교사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을 바람직한 관계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평화가 공존하는 1국가 2체제”가 27.5%로 2순위를 차지했으며, “1국가 1체제의 완전통일”은 17.0%로 3순위,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8.0%만이 응답했다. 앞서, 북한을 “적대국”으로 인식을 많이 한 20대 교사에서 “자유로운 왕래수준”이 바람직한 남북 관계라는 응답이 48.6%로 높게 나왔다. 현재 상태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교사 변인으로는 20~30대, 전문대졸 이하라 하겠다.

〈표 25〉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1국가 1체제 완전통일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자유로운 왕래 수준	현재 상태	계	$\chi^2(df)$
전체	17.0	27.5	47.5	8.0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17.6	27.6	45.2	9.5	100.0(199)	1.70(3)
어린이집	16.4	27.4	49.8	6.5	100.0(201)	
연령						
20대	12.3	31.5	48.6	7.5	100.0(146)	11.73(9)
30대	19.5	24.4	45.5	10.6	100.0(123)	
40대	22.5	21.6	50.0	5.9	100.0(102)	
50대	10.3	41.4	41.4	6.9	100.0(29)	
최종학력						
전문대졸이하	11.6	22.5	54.9	11.0	100.0(173)	16.42(6)
대졸	19.8	32.1	42.2	5.9	100.0(187)	
대학원졸	27.5	27.5	40.0	5.0	100.0(4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일반국민 역시, 바람직한 남북 관계로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38.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 순위도 유아교사 결과와 동일하게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체제, 1국가 1체제의 완전 통일 체제, 현재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유로운 왕래를 바라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 이 역시, 유아교사가 여성이 많다는 사실과 결부해 보면, 유아교사가 “자유로운 왕래”를 많이 꼽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아교사와 유사하게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대졸(대재포함) 이하에서 현재 상태를 원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일반국민 역시, 바람직한 남북 관계로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38.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순위도 유아교사 결과와 동일하게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체제, 1국가 1체제의 완전통일 체제, 현재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유로운 왕래를 바라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 이 역시, 유아교사가 여성이 많다는 사실과 결부해 보면, 유아교사가 “자유로운 왕래”를 많이 꼽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아교사와 유사하게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대졸(대재포함) 이하에서 현재 상태를 원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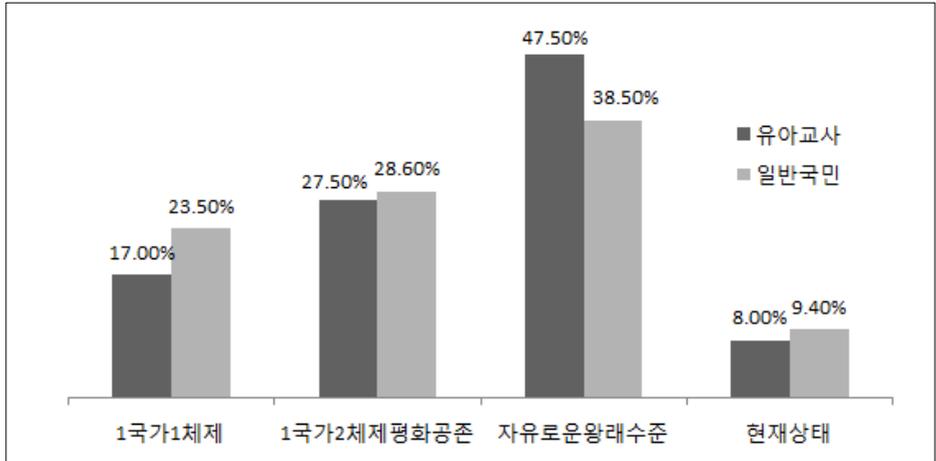
〈표 26〉 일반국민의 바람직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자유로운 교류협력 왕래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체제	1국가 1체제 완전통일	통일을 원치 않음(현재상태)	계	$\chi^2(df)$
전체	38.5	28.6	23.5	9.4	100.0(800)	
성별						
남	36.3	28.3	26.7	8.7	100.0(438)	6(3)
여	41.2	29.0	19.6	10.2	100.0(362)	
연령						
20대	32.8	31.1	18.9	17.2	100.0(122)	21.67(12)*
30대	36.9	25.4	23.8	13.8	100.0(130)	
40대	38.7	32.9	22.6	5.8	100.0(155)	
50대	38.7	29.5	24.9	6.9	100.0(173)	
60대 이상	42.3	25.5	25.5	6.8	100.0(220)	
학력						
고졸이하	40.7	26.5	25.0	7.8	100.0(332)	13.73(9)
대졸(대재포함)	37.5	29.9	22.3	10.2	100.0(421)	
대학원 이상	28.9	39.5	23.7	7.9	100.0(38)	
모름/무응답	44.4	0.0	22.2	33.3	100.0(9)	

자료: 이윤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미간행물. p. 118.

* $p < .05$.



[그림 2] 바람직한 남북 관계: 유아교사와 일반국민 비교

유아교사가 학창시절 배운 북한 및 통일교육의 성격을 알아본 결과이다. 평화통일을 배웠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반공교육은 25.0%, 배우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5% 정도 나왔다. 학교교육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의 성격은 어느 시기에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 다르다. 1970~80년대,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학교를 다닌 교사라면 반공교육으로 배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1990년대 중반이후 2000년대 학교를 다닌 교사라면 평화통일을 배웠을 것이다.

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사 연령은 경력과도 상관있으므로 교사 경력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20대, 30대 교사는 평화통일 교육을 배웠다고 응답했으며 40대 이상은 반공교육으로 배웠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즉,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평화통일 교육을, 반대로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반공교육을 받은 교사가 많았다.

그러나 반공교육으로 배웠다고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평화통일 교육으로 배웠다고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앞의 결과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 유아교사가 학교에서 배운 북한교육

단위: %(명)

	반공교육	평화통일	배우지 않음	기타	계	$\chi^2(df)$
전체	25.0	69.8	4.8	0.5	100.0(400)	
기관유형						
유치원	30.2	65.8	3.5	0.5	100.0(199)	6.34(3)
어린이집	19.9	73.6	6.0	0.5	100.0(201)	

	반공교육	평화통일	배우지 않음	기타	계	$\chi^2(df)$
경력						
4년 미만	2.9	83.8	13.2	0.0	100.0(68)	112.72(12)***
4-7년 미만	11.8	80.9	6.4	0.9	100.0(110)	
7-10년 미만	17.6	81.2	1.2	0.0	100.0(85)	
10-15년 미만	36.1	59.7	2.8	1.4	100.0(72)	
15년 이상	67.7	32.3	0.0	0.0	100.0(65)	
연령						
20대	3.4	87.7	8.9	0.0	100.0(146)	110.53(9)***
30대	19.5	77.2	1.6	1.6	100.0(123)	
40대	51.0	46.1	2.9	0.0	100.0(102)	
50대	65.5	31.0	3.4	0.0	100.0(29)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13.3	80.3	5.2	1.2	100.0(173)	50.07(6)***
대졸	27.3	67.4	5.3	0.0	100.0(187)	
대학원졸	65.0	35.0	0.0	0.0	100.0(4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유아교사에게 유아 대상으로 평화통일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적극적인 교육은 걱정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찬성이다”가 81.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찬성이다”는 9.0%, 오히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아기에 교육을 반대한다” 8.8%로 적극적 교육과 반대하는 교육이 비슷하게 나왔다.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은 국공립유치원, 15년 경력 이상, 40대 이상, 대학원졸 교사 집단에서 나타났다.

〈표 28〉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 응답

단위: %(명)

	① 미성숙 단계이므로 반대	② 자연스러운 교육 찬성	③ 어렸을 때부터 교육 적극 찬성	④ 잘모름/ 무응답	계	$\chi^2(df)$
전체	8.8	81.8	9.0	0.5	100.0(400)	

	① 미성숙 단계이므로 반대	② 자연스러운 교육 찬성	③ 어렸을 때부터 교육 적극 찬성	④ 잘 모름/무응답	계	$\chi^2(df)$
기관유형						
유치원	7.5	81.4	10.1	1.0	100.0(199)	3.18(3)
어린이집	10.0	82.1	8.0	0.0	100.0(201)	
경력						
4년 미만	14.7	77.9	7.4	0.0	100.0(68)	15.19(12)
4-7년 미만	10.9	79.1	8.2	1.8	100.0(110)	
7-10년 미만	5.9	87.1	7.1	0.0	100.0(85)	
10-15년 미만	6.9	84.7	8.3	0.0	100.0(72)	
15년 이상	4.6	80.0	15.4	0.0	100.0(65)	
연령						
20대	11.6	80.1	7.5	0.7	100.0(146)	7.90(9)
30대	8.9	83.7	6.5	0.8	100.0(123)	
40대	4.9	82.4	12.7	0.0	100.0(102)	
50대	6.9	79.3	13.8	0.0	100.0(29)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6.9	82.1	9.8	1.2	100.0(173)	6.39(6)
대졸	11.2	81.3	7.5	0.0	100.0(187)	
대학원졸	5.0	82.5	12.5	0.0	100.0(40)	

주: ① 아직 미성숙 단계이므로 반대다

② 적극적인 교육은 염려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찬성이다

③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평생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찬성이다

④ 잘 모르겠다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동일한 질문을 일반국민에게 실시한 결과, 응답순위는 동일하게 나왔으나 응답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국민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육은 찬성한다”가 59.3%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찬성한다” 23.4%, “반대한다” 16.9% 순으로 나왔다. 유아교사와 비교해 보면, 일반국민이 “적극적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3배 가까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유아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유아교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20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34.4%로 높게 나왔다.

〈표 29〉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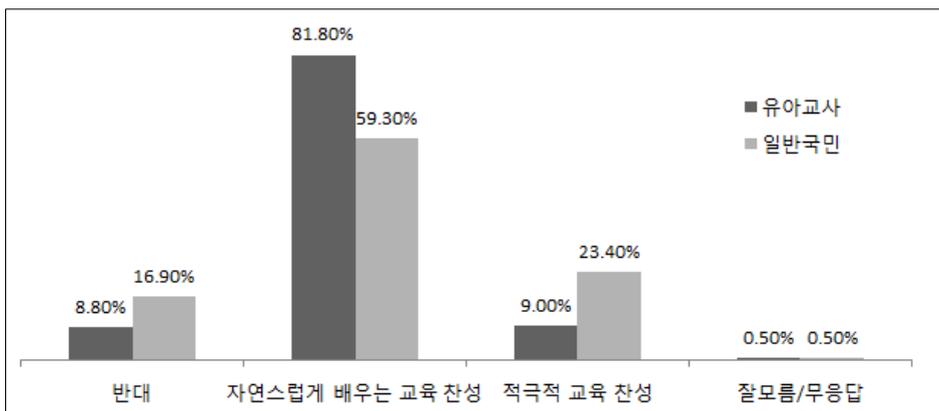
단위: %(명)

	자연스러운 교육 찬성	어렸을 때부터 교육 적극 찬성	미성숙단계이므로 반대	잘모름/무응답	계	$\chi^2(df)$
전체	59.3	23.4	16.9	0.5	100.0(800)	
성별						
남	55.7	25.6	18.5	0.2	100.0(438)	6.98(3)
여	63.5	20.7	14.9	0.8	100.0(362)	
연령						
20대	60.7	4.9	34.4	0.0	100.0(122)	67.06(12)***
30대	66.9	15.4	16.9	0.8	100.0(130)	
40대	61.9	25.2	12.3	0.6	100.0(155)	
50대	61.3	27.7	10.4	0.6	100.0(173)	
60대 이상	50.5	33.6	15.5	0.5	100.0(220)	
최종학력						
고졸이하	59.0	23.8	16.6	0.6	100.0(332)	5.19(9)
대졸(대재포함)	60.6	21.9	17.1	0.5	100.0(421)	
대학원 이상	52.6	31.6	15.8	0.0	100.0(38)	
모름/무응답	33.3	44.4	22.2	0.0	100.0(9)	

- 주: ①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가므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유아가 판단하기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④ 모름/무응답

자료: 이윤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미간행. p. 120.

*** $p < .001$.



[그림 3] 유아에게 평화통일 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와 일반국민 비교

다. 유아교사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유아교사에게 연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유아교사는 “통일교육 전문가 풀(pool) 공유 및 초청 강연”을 56.3%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강의 등의 원격연수를 희망하였으며(30.0%) 대체교사 지원은 13.3%로 3순위를 차지했다. 요컨대, 교사들은 연수를 받으러 연수기관으로 가기보다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받거나 원격연수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연수확대를 위한 방안

단위: %(명)

	대체교사 지원	원격연수	통일교육 전문가 풀 공유 및 초청 강연	기타	계	$\chi^2(df)$
전체	13.3	30.0	56.3	0.5	100.0(400)	
기관종류						
유치원	8.0	30.7	60.3	1.0	100.0(199)	11.34(3)
어린이집	18.4	29.4	52.2	0.0	100.0(2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5. 결론: 정책방안

가. 유아교사와 유아 대상 통일교육 실시의 당위성

유아교사의 저조한 통일교육 이수, 만 3세 유아의 북한 및 통일교육 수업활동 미편성, 아직 미성숙한 유아에게 북한 및 평화통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있지만,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의무(헌법 제4조),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헌법 제66조)가 있으며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일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통일교육지원법).

〈표 31〉 통일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법령	조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유아교사와 유아 대상 북한 및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누리과정에서 통일교육 부분 편성·운영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4.3%만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교사의 연수 참여가 더 저조했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낮은 연수율의 이유는 대학에서의 교사 양성과정과 현행 누리과정 모두, 통일이나 북한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선,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시수를 확대·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누리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운영 시, 북한 및 통일교육은 거의 편성하지 않는다(완전 편성하지 않는다 포함)고 응답한 경우가 72.1%에 달했다. 미편성의 이유로는 ‘누리과정에서 낮은 비중’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에 내용이나 활동이 적게 편성되어있으면, 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범주와 내용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표는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을 연령별로 제시한 것인데, 기술한 내용에서 북한 또는 통일이란 용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 중「우리나라」생활주제에 기술되어 있다.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수준에서 북한 및 통일이란 용어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 3세부터 북한 및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설문조사에

서는 만 3세 유아의 수업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현행 누리과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4.0%의 유아교사들은 만 4세부터 시작하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내용상의 연계와 현실적으로 만 3세 유아가 포함되는 혼합연령반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유 등으로 만 3세 유아 대상의 북한 및 통일교육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43.8%가 나왔다.

2014년에 교육부 지정으로 국립공주대부설유치원에서 개발한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과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개발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에는 만 3세 유아를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주대부설유치원의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만 3세 유아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즐겁게 배우며 만 4세가 되었을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누리과정 개정 시, 교사용 지도서에 만 3세 유아 대상의 북한 및 통일교육 활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다. 유아교사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교수자의 가치관, 교육철학은 학습자에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수된다. 통일교육원은 교사를 “통일교육 핵심전달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만큼 통일교육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써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설문조사에서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사례는 최근 3년 기준으로 4.3%에 그쳤다. 유아교사가 관련 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연수가 있는 지도 몰라서(53.0%)”와 “받을 만한 연수프로그램이 없어서(30.8%)”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1) 연수기관에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적극적 홍보 실시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연수 관련 정보는 통일교육원이나 시도 교육청을 통해 현장에 내려온다. 이 때 국공립유치원은 학교 체제 내에 있으므로 공문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립유치원은 전달체계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도 관련 공문이 전달될 수 있게 통일교육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원의 2015년 「통일교육 운영계획」

에 ‘유아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법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유치원 및 유아원’으로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유아원은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여진다. 따라서 유아원은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착오는 어린이집을 연수대상 기관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수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금의 “유치원 교사반”이란 용어도 “유아교사반”으로 용어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유아교사들은 대부분이 20~30대로 젊은 세대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20~30대는 학창시절에 평화통일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유아교사들도 포래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유아에게 가르치는 북한 및 통일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교육내용이나 평화통일교육 내용으로 편성되었더라도, 전수자(교사)의 의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교육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유아교사 대상의 연수가 중요한 이유이다.

2) 국가 수준의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아교사 연수 연계 필수화

교육부는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전국의 유아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연동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국 보급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도 연수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관련 연수 내용의 공문을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송하여 어린이집 교사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많지는 않으나, 정부는 꾸준히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교사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개발의 의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국가 수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유아교사가 연수를 받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3) 통일교육원의 유아교사 연수 횟수 확대 등

2014년에는 통일교육원에서 유치원 교사반을 개설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개설하였고, 지난 9월9일(수요일)부터 11일(금요일) 3일동안 합숙 방식으로 1회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 때 참가하지 못하면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유아교사 연수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일 운영시간이 평균 11.4시간(이윤진 외, 2014: 118)이므로 평일에 교사가 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합숙을 하는 경우 교사들은 어렵고 원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중등교장(교감)반이나 중등교사 기본반은 올해 각각 5회, 4회씩 운영되었고, 합숙과 비합숙을 병행하였다. 이에 통일교육원은 유아교사 대상의 교육 연수 횟수를 지금의 1회에서 확대하고, 비합숙 방식도 병행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4) 찾아가는 교사 연수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교사는 연수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통일교육 전문가를 기관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다가나 원격연수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아교사는 늘 유아를 곁에서 지켜보고 보호해야 한다. 유아교사 대상의 연수는 기관으로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격연수보다는 통일교육 전문가를 초청, 강연을 듣는 방식이 유아교사도 가장 많이 희망했고, 교육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원격연수는 교사가 성실하게 이수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유치원 교사 출신을 통일전문가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도록 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점수를 부여하여 교사로 하여금 적극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라.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통일교육 편성·운영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이나 통일교육을 다룬 교과목을 배운 경험이 없다면, 유아에게 교육하기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해볼 때, 통일교육은 환경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인구교육에 못지않게 시급하며 중요한 미래 대비 과정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여야 할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한국교육신문, 2011. 5. 9.)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에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이 세 번째의 중요한 변화로 예상하였다(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미래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생애초기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만큼 안목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남북관계의 진전

과 통일'이란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이 미래사회의 큰 변화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커리큘럼에 북한 및 통일교육을 편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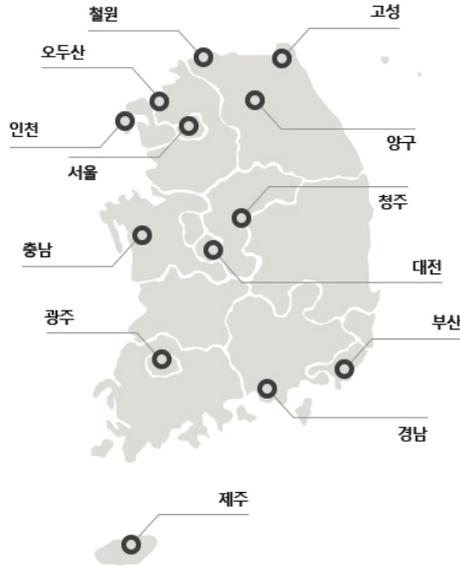
마. 균형있는 교수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업활동 및 활동자료 개발·보급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사들은 누리과정의 북한 및 통일교육을 대·소집단 활동 중심으로(71.0%) 실시하며 대·소집단 활동 중에서도 이야기 나누기(1순위: 89.8%)가 압도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자유선택활동에서는 언어영역이 70.1%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형태별, 활동영역별로 다양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발달에 적합한 통일교육 수업활동과 활동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유아의 통일교육도 5개 영역이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교수방법은 놀이와 체험 방식으로 편성하며 실내·외 환경 골고루 통일교육 자료 구축,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강조하였다.

유치원에서의 통일교육 역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와 체험 방식으로 편성해야 하며, 유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사례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유치원의 실내·외 환경을 흥미로운 통일교육 자료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의 통일교육은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개발한 유아통일 교육프로그램의 활동형태를 보면, 대체로 실내에서 활동이 편성·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체험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균형있는 북한관과 건전한 통일관 확립을 위해 설립한 통일관을 현장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⁵⁾ 현재 서울, 인천, 오두산(파주), 고성, 양구, 철원, 대전, 충남, 청주,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접근성이 낮지만,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관은 단체 방문하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유아 체험관을 설치, 운영한다.

5) 이하 내용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함.



자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page/nation_center_info/main.do?mid=SM00000194, 검색일: 2015년 12월 2일)

[그림 4] 전국 통일관 현황

이처럼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 수업활동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까지 실내 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활동으로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유아교사들은 “수업활동 개발·보급(19.3%)”보다는 “보다 풍부한 활동자료 제공(43.0%)”을 더 희망하였다. 활동자료라면 PPT, 동영상, 그림사진, 활동지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원이 이러한 활동자료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도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 활동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PPT, 그림사진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 유아용 활동자료들은 많지 않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에는 초등, 중등, 고등,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유아 항목을 추가하여, 초중등 교원뿐 아니라 유아교사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활동자료들을 제공하면 교사들은 민고 수업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저작권(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이란 민감한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 통일교육원이 유아 통일교육 활동자료의 공급처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바. 유아 통일교육의 목적은 평화감수성 키우기

유아기에 배우는 북한 및 통일교육의 궁극적으로는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북한의 실상을 배우고, 문화를 단편적으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감수성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소 추상적 개념인 평화감수성 교육의 정의를 다음의 인용글로 대신하겠다.

분단이 가져온 갈등과 비평화적 문화가 당연히 어린이들의 성장과 가치관에 영향이 있다면, 평화적 관점과 분단 상황의 현실을 증오와 공포가 아닌 이해와 평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감수성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북녘 또래에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나와 같기도 다르기도 한 존재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운선, 2015: 7)

지금의 20~30대 젊은 세대는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배웠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감수성을 키우지 못한 채 평화통일교육을 배웠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교교육만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학교 밖의 사회문화적 환경도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북한 및 통일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14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초빙해서 북한 유치원을 배우고, 북한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와 놀이를 함께 한 교육활동은(국립공주대부설유치원, 2014: 20) 유아들이 북한을 받아들이는 체감과 이해 정도는 클 것이다. ‘평양에 사는 친구’ ‘음식을 나누어요’ ‘판문점에서 만나요’ ‘윗마을 원숭이와 아랫마을 토끼’ ‘벽을 허물어요’ ‘북한 만화영화를 보아요’ ‘북한에 가고 싶어요’ 등의 수업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배울 것이다.

평화감수성교육의 목적은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것만이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통일의 일환이란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해 나가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곽노의·박원순·이상원(2013).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419-436.
-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2014).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건전한 통일관 확립. 2014학년도 교육부지정 상설연구유치원 연구보고서.
- 김숙자·김현정(2015).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적 접근에 대한 유아 교육내용 분석-3, 4,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333-354.
- 김숙자·지성애·최민수·서성미(2003). 유치원의 통일교육 실천 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241-268.
- 김유라(2012). 누리과정에 의한 남·북한 유아문학교육 방안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10, 207-229.
- 김운선(2015). 평화교육 어떻게 할까. 어린이어깨동무 가을 통권 109호, 6-7.
- 박명규·강원택·김병로·김병조·송영훈·장용석·정은미(2014).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유은정·정희정(2013). 보육교사의 국가관 및 보훈관이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수업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훈논총, 12(1), 38-65.
- 유은정·정희정(2014). 유아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보훈논총, 13(2), 41-73.
- 윤기영(2006).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통일교육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319-338.
- 이명희(2000). 유아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361-390.
- 이원영·이태영·정혜원·이경민(2003). 통합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이 유아의 통일 관련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3(3), 69-89.
- 이윤진·김아름·강일규·손기용·임준범(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미간행물).
- 이윤진·이규립·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26.
- 지성애·김숙자·최민수(2003). 유아 통일교육. 정민사.
- 최민수·신현미(2012).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의 남북한 민족공동체의식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365-388.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 한국교육신문(2011. 5. 9.). 무한경쟁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변화에 달려있다.
- 홍순옥·서현아·김경미·이해정·김유정(201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 토론 |

좌장: 조 복 희 명예교수(경희대 아동가족학과)

토론: 양 옥 승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 기 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박 영 정 센터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

이 은 희 교사(공주대학교 사범대부설유치원)

토론 1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양 옥 승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누리과정의 통일교육 편성,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일교육 실태, 유아교사의 통일교육 연수현황 등 유아 통일교육 관련 사항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폭넓게 조사, 분석하여 남북 육아지원 방안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유아 통일교육 방향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유아에게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통일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 없이 양질의 유아 통일교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교사의 4.3%만이 통일교육 연수에 참여했으며, 누리과정과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용어가 포함된 교육내용이나 교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왜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지, 통일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술적인 논의 없이 누리과정이나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나 관련 교과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고 있다. 원고의 말미에 ‘유아 통일교육의 목적은 평화감수성 키우기’에 두어야 한다는 진술이 있지만 그 근거 또한 미미하므로 유아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문헌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에서 유아교사는 대부분 여성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다는 인구통계학적 사실을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도 요구되지만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통일교육의 시각에서 누리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초등)에서 각각 중시하는 핵심역량을 살피고 그에 따른 교육목표, 편성·운영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상호 비교한다거나, 유아교사 양성대학과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유아·초등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하면 활성화 방안은 학교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유지할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누리과정과 다르게 최근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을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과 함께 ‘범교과 학습주제로 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학생의 잠재력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유아의 흥미, 요구, 관심, 필요를 중시하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지어 보다 체계적으로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은, 교사가 사전에 설정한 수업목표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다르게, 상당부분 아동이 중심이 되어, 즉 유아 주도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이나 북한 문화가 유아의 일상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대로 ‘북한’을 주제로 할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발달과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교육은 걱정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찬성’이라는 항목에 80% 이상의 유아교사가 반응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아기에 교육을 반대한다.’에 대해 일반국민(16.9%)보다 유아교사(8.8%)의 응답률이 낮은 것은 유아는 미성숙하지만 유아교사는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교사의 소신과 전문성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어찌됐든, 연구자의 지적대로 향후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평화감수성이나 다문화감수성 개발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이 연구결과를, 서울·경기 지역 112명의 유아교사(유치원교사 67명, 어린이집 교사 45명)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는 2001년 연구(양옥승, 조유나, 정수미, 2001, 유아교사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 7, 123-141) 결과와 단순 비교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교류협력의 동반자로 보는 비율은 43.8%(2001년), 67.8%(2015년)이지만,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은 51.8%(2001년), 19.5%(2015년), 그리고 적대국이라 보는 비율은 2.7%(2001년), 11.3%(2015년) 등으로 두 연구결과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면에서 이러한 단순 비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을 적대국이나 동반자라 인식하는 쪽으로 비율이 늘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통일교육 연수 현황 분석을 위해 통일교육 연수를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들(참여횟수, 주최기관, 참여이유,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고, 기관유형 간 차이를 검증(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총 사례수가 1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적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유응답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유아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연구자도 지적했듯이 교사가 된 후에 받는 연수 못지않게 교사가 되기 전 양성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 통일이나 유아 통일교육이 교과나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개정하는 작업은 교수의 몫이다. 그리고 대학 교육과정은 유아교사 양성대학 평가기준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바꾸어 말해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포함한 유아교육 전문가 집단 모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유아정책연구소는 유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아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토론 2

토 론 문

이 기 범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의견

- 북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일반 국민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32.0%가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응답하였고, 40.3%는 “교류협력의 동반자”라고 응답한다고 선행연구를 인용. 본 연구의 조사에서 유아교사의 경우는 각각 19.5%와 67.8%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됨. 이 결과로 보면 같은 여성이지만 국민들과 유아교사들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존재. 전자는 인도주의적 인식 그리고 후자는 도구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음. 국민들과 교사들 사이에 이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크면 북에 대한 교육을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그런데 하나의 단서로서 문항 내용의 차이가 발견됨. 국민용 문항은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인데 반하여 교사용 문항은 “도와야 할 한민족”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한민족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추론 가능함. 후속연구가 요청됨.
-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의 연령 비교에서 일반 국민과 유아교사 모두 20대가 “현재 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이 경향을 “반공교육으로 배웠다고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평화통일 교육으로 배웠다고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그 해석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런 해석은 유아교사에게 “학교에서 배운 북한교육은?”이라는 질문에 20대 교사들이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7%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40대 교사들의 46.1%, 50대 교사들의 31%가 평화통일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 이 세대는 국가교육

과정으로 보면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데 왜 그런 응답을 하는가 의문이 제기됨.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함. 첫째는 20대가 북과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학교교육과 별도로 경제난, 취업난 등의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임. 둘째는 북한교육 혹은 통일교육에 대한 의미가 정립되지 않아서 모든 연령대가 실제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믿는 것’으로 응답했을 수 있다는 것임.

- 위의 두 번째 추론은 유아 통일교육의 방안을 기획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임.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 중에서 경력 15년 이상 교사(61.5%)와 대학원졸 교사(60%)에서 만 3세 유아의 누리과정에 북한 및 통일교육을 편성하는 것은 육아발달 특성 상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음. 여기서 유아 대상의 북한교육과 통일교육은 과연 무엇이나는 의문, 즉 합의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됨. 현행 몇 가지 활동을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기는 미비함. 이런 혼란은 유아교육에서뿐 아니라 우리사회 통일교육 전반에서 직면하는 문제임. 통일교육에 북한 이해도 포함되고 남북의 바람직한 관계 모형도 학습되어야 하지만 그 근본 방향은 북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인간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함. 통일교육은 크게는 평화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으로서 상호이해와 존중, 공존과 협력, 공감과 소통을 배우는 활동이 되어야 함. 이런 자질을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학습 가능함. 예를 들면 피아제(Piaget)는 아동 도덕발달의 중요 요소로 대화, 협력, 존중을 제시하였음. 최근의 연구로 예일대학의 심리학자들은 6-10개월 된 영아들도 피해를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공감한다고 보고하였음. 연구도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 평화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함.

북한 어린이 보건 의료: 지원과 과제에 대한 의견

- 북의 신생아 1,000명 당 5살 이하 사망률은 연구의 설명처럼 발표 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UN 기구인 IGME(United Nations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7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에 비하면 점차로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참고로 같은 해 한국의 통계치는 4.1명임.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캄보디아는 1990년 118명에서 2013년 38명으로 감소되면서 연평균 감소율 4.9%, 라오스는 1990년 162명에서 2013년 71명으로 감소되면서 3.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북은 이런 국가와 비교하여 사망률은 낮으나 1990년대 이후 년 감소율이 2.0%로 아시아 국가 최저임. 즉 획기적인 영향 변인이 없다면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도 기대하기 어려움.
- 같은 기구인 IGME에 의하면, 5살 이하 사망원인의 70%는 신생아사망, 폐렴, 설사에서 비롯됨. 또한 5살 이하 사망원인의 45%는 영양부족과 연관됨. 영양을 개선하고 폐렴과 설사를 적절하게 치료하면 사망률은 현저하게 감소됨.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어린이어깨동무’가 평양에 설립한 설사치료전문병원과 강남군 장교리 모자보건센터의 사례로 체험한 바 있음.
-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영유아들이 생존하더라도 능력이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임신부터 2세까지의 기간을 ‘대단히 중요한 1000일의 기회(critical 1,000-day window)’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중 영양보충과 돌봄 등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키에 비하여 체중이 늘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고 다른 건강 문제(심장병, 고혈압 등)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우리 정부가 ‘모자 패키지(1000 Days Project) 사업’을 제안한 것은 적절함.
- 영유아기의 영양부족은 뇌 발달과 인지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음. 예를 들면 1907년대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 고아들을 연구한 결과, 영양 상태와 입양 나이에 따라 IQ가 5-15점까지 격차가 발생하였음. 북한 어린이들의 12.9%가 아주 심한 영양실조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약 10%의 지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음.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는 2025년에 남 582만 명, 북 577만 명으로 서 마지막으로 비슷해지고 그 이후 2040년에는 각각 476만 명, 580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각각 376만 명, 588만 명으로 크게 격차가 벌어짐. 북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즉각적, 포괄적, 종합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추진될 것을 기대함.

토론 3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과 남한 영유아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박 영 정 센터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

- 현 정부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민생, 환경, 문화의 3대 통로를 개설하여 작은 통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큰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구호방식의 일회성 지원에서 복합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으로 전환 *복합농촌 개발사업
 - 민족 동질성 회복 프로젝트에 집중
 - 남북 공유자산의 보존과 공동 활용
 - 국제 기구나 제3국의 활용을 간접 지원
 -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모자 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 이경화, 홍민의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지원과 과제'에서는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음.
 - 첫째,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둘째, 북한과의 관계에 따른 지원 문제
 - 셋째,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수준

- 발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면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첨부
 - 첫째,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 사업. 기존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북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필요. 이 부분은 국제기구나 제3국(중, 러시아, 유럽국가 등)의 민간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

- 둘째, 북한이 영유아 지원 사업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으면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은 ‘시범 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발전할 수 없음. 따라서 영유아 지원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하면 호전되었을 수 있지만 국제 표준이나 남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통일시대의 자산이 될 북한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플랜이 가동될 수 있는 정도의 남북 당국간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셋째, 북한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 현재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영유아 지원 사업만큼은 남북한 사이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이 있어야 함.
- 이윤진의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남한 내 유아 대상 통일 교육 실태와 유아 교사를 통한 유아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의 영유아가 통일 시대의 주역(자산)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 영유아 보건 의료 지원과 함께 남한 유아 통일교육도 통일준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분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남한 영유아 대상 통일교육은 유아 발달 특성상 다른 교육 내용에 비해 통일교육의 우선순위(또는 비중)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발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유아 대상 통일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봄
- 특히 유아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유아 대상 통일교육 방법론 개발이 아닌, 유아 교사 자신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도 좋을 것임.

토론 4

유아교사의 통일인식 실태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토론편

이 은 희 교사(공주대학교 사범대부설유치원)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남북 경제공동체가 통일의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은 사회적 화두가 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유아들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르치는 교육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에서 북한 및 통일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인 남성에 비해 성인여성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여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원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통일교육의 실재를 고찰하여 통일 인식 제고 및 유아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 본고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미흡하나마 몇가지 제안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고 하였으며 유아교사와 유아대상 통일교육 실시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책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2015년 유치원 교사의 통일교육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15시간으로 실시되었고 총45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이 있다고 제시되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통일교육 연수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

로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통일교육 연수시기를 학기 중이 아닌 1~2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맘 놓고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수 횟수 및 연수 참여 인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이 유치원 연간운영계획에 삽입되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만3세부터 북한 및 통일교육 수업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과는 의미 있는 조사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 자료에서는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통일교육 활동계획안과 이에 필요한 교수자료를 개발하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예로는 음식이해: ‘가락지빵을 만들어요’, 요리활동, 생활이해: ‘판문점에서 만나요’, 수조작영역 활동, 개인 간의 화해: ‘꼬마대장 평양이’, 국가 간의 이해: ‘삼천리 금수강산에 꽃이 피었어요’, 평화: ‘둘이라서 좋아요’ 등의 활동 등이 있으며 본인은공주대학부설유치원에서 2014학년도에 1년간 3,4,5세 연령을 대상으로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건전한 통일관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부상설연구유치원에서 연구주무를 맡아 3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조작, 게임, 동화, 노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유아들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막대인형 및 입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1년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만3세의 통일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로 볼 때 누리과정에서 만3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누리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부분 편성·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누리과정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추출한 결과 생활주제 ‘우리나라’에서 다룰 뿐 다른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누리과정 전 영역 생활주제에 고른 분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재·교구를 보급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균형있는 북한관과 건전한 통일관 확립을 위해 설립한 통일관을 현장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13개의 지역에서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실상과 생활을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유아나 학부모들에게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2014년 공주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의 통일관련 정책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즉 북한 음식 요리활동과 점심 식단을 이용한 북한 음식체험으로 북한 음식에 관심을 갖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기원 가족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로 온 가족이 통일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기원 그림그리기와 통일기원 노래 부르기를 통해 통일의지를 다지고,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학기 초 만3세 유아에게 사전검사에서 ‘통일을 하면 나쁜 점이 무엇인가요?’하고 물었을 때 한참을 생각한 유아가 ‘점이 나빠요’ 라고 대답하였다.

나쁜 점의 점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유아에게 다양한 통일관련 수업을 실시하여 유아들은 게임을 해도 ‘통일이 되어야 해요’ ‘북한을 도와주세요’ 하며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대통령께 통일을 빨리하자고 편지를 쓰고,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공부하면 통일이 된다는 유아들의 말을 떠올리면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원해 본다.



2015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
Tel. 02-398-7700 Fax. 02-730-3313 www.kicce.re.kr